

지경부, R&D 혁신TF 발족

지식경제부가 6월23일 <R&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방안>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(TF)를 발족했다.

TF는 삼성동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첫 회의를 하고 8월 말부터 혁신안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.

지경부는 TF 주요 과제로 기술위원회 제도 통합운영 및 활성화, 과제뱅크 운영, 신규평가방식 도입,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설정했다.

지경부 관계자는 “R&D 예산은 빠르게 증가해 2009년 4조원 대에 이르렀으나 현행 R&D 프로세스는 1조원 이전의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”며 “산업·IT·에너지·부품소재 등 부문별 사업간 상이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실정”라고 지적했다.

지경부는 8월 초부터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산·학·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2009년 말까지 <R&D 시스템 혁신>도 추진할 계획이다.

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전문성, 개방성, 체계성이 확보된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<유현석 기자>

<화학저널 2009/06/23>